

미술교류

아시아 각국의 미술작가나 연구원을 후쿠오카에 초청하여 장기간 체재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작품제작, 워크숍, 강연회 등의 형식으로 다양한 미술교류를 합니다.



Diyanto (Indonesia)
Performance "Fragile Border" 2001

조사연구

아시아 각국의 근현대미술에 관한 연구를 현지 조사와 문헌자료 등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그 성과를 전시회나 강연회 등의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Yun Soknam (Korea)
Genealogy 1993

작품수집

19세기에서 현대까지의 근현대미술작품 수집을 원칙으로하며 아시아의 23개의 나라와 지역의 작품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현재 약 2300점을 소장.



리바레인 센터빌딩 외관 (7·8층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창조·발신하는 교류의 장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은 아시아의 미술작가나 연구자를 초청하여 체재제작이나 아시아미술의 연구 등 다양한 미술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미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일본과 아시아가 또한 시민과 미술에 관련된 사람들이 단순한 만남에 그치지 않고 창조하여 발신해 나가기로 목표로 한 교류형 미술관입니다.

「도시」속의 라이브한 미술관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은 후쿠오카와 하카타의 도시의 에너지가 뿜어내는 도심 속에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시아의 미술을 통하여 아시아의 「현재」에 최단거리로 접속할 수 있는 도시형 미술관입니다. 아시아의 미술작가들도 도시의 특성을 살린 표현방법으로 현재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통안내



시영지하철

나카스가와바타이역 하차, 6번 출구 도보로 바로 후쿠오카공항에서 하카타역에서 니시테쓰 후쿠오카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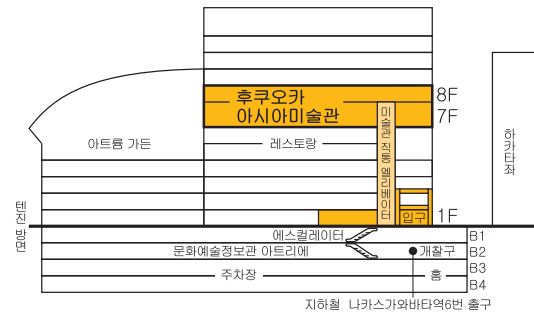
후쿠오카공항역에서 9분 하카타이역에서 3분 텐진역에서 1분

니시테쓰 버스

가와바타-하카타좌미에 정류장에서 하차 바로

자동차

테재부 방면에서 도시고속 [지오]램프에서 차로 약 7분 카타큐슈 방면에서 도시고속 [고후쿠미치]램프에서 차로 약 5분 *소와 도리에서, 하카타 리바레인 지하 주차장(유료)을 이용하세요.



이용안내

개관 시간 오전 10시부터8시까지(입실은 오후 7시 30분까지)
휴 관 일 매주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
연말연초(12월26일~1월1일)

입관료: 무료
관람료: 아시아갤러리

개인	일반	200엔(150엔)
	고교생·대학생	150엔(1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특별전 관람료는 별도를 결정. ()안은 20명이상의 단체요금
*표지된 금액이 세금이 포함된 요금입니다.



〒812-0027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시모가와바타마치 3-1
하카타리바레인 센터빌딩 7·8층
Tel 092-263-1100 Fax 092-263-1105
홈페이지 <http://faam.city.fukuoka.lg.jp>

Design / Matsuda Hirochika Design Office



福岡アジア美術館
Fukuoka Asian Art Museum

안내



R. K. Das (painting), Gaphar Mistry (rickshaw making), (Bangladesh), Rickshaw, 1994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의 활동



교육보급

폭넓은 시민층이 참가할 수 있는 워크숍·강연회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술관 자원봉사원들의 전시 작품의 해설 등을 통하여 아시아 미술과 문화에 접하고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전시

소장품전
뛰어난 예술성과 서구나 일 아시아의 근현대미술작품을 계통적으로 소개하며 테마별로 연간 8회정도 전시를 바꿉니다.

기획전

「근대미술」 「현대 아시아의 작가」 「생활과 아트」 「아트 횡단」 4개 시리즈의 기획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시대·지역·장르별로 아시아미술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특별기획전

최신의 아시아미술을 소개하는 「후쿠오카아시아미술트리엔날레」를 3년마다 개최. 아시아와 관련된 폭넓은 분야의 특별기획전도 개최.



Bauwa Devi (India)
Krishna and Cow 1996-97

기본이념

아시아와의 교류거점도시 후쿠오카

후쿠오카시는 옛부터 문화를 수용하는 창구로서, 지리적, 역사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두고 긴 세월을 걸쳐 아시아와의 교류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은 미술분야의 교류를 목표로, 1999년에 개관했으며 독자적인 활동으로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유일한 아시아의 근현대미술의 전문관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은 아시아의 근현대 미술작품을 계통적으로 수집하여 전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미술관입니다. 그들의 작품은 서양미술의 모호나 전통의 되풀이가 아닌 계속 변화해가는 아시아의 「현재」를 살아가는 미술작가가 절실한 메시지를 담아 제작한 것이며 기성의 「미술」의 틀을 벗어나려하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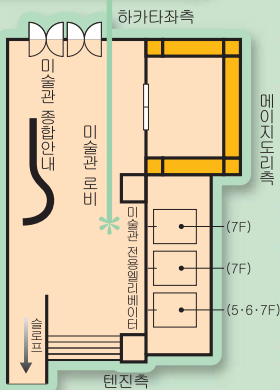
아시아의 「현재」와 만날 수 있는 미술관

미술관 입구, 종합안내
미술관 전용엘리베이터 입구



아시아 미술의 입구

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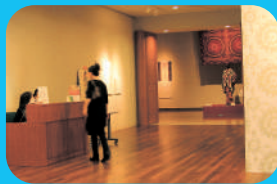


Han Zhiying / Zhiying Studio (China)
Poster for Anker Beer
1920-30s



기획갤러리

3년에 한번 개최되는 「후쿠오카 아시아미술트리엔날레」를 중심으로 폭넓은 테마의 특별기획전을 개최.



유지영·샵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의 오리지널상품과 아시아각국의 매력적인 잡화, 본관이 발행하는 전람회도록 등, 아시아미술관련서적도 다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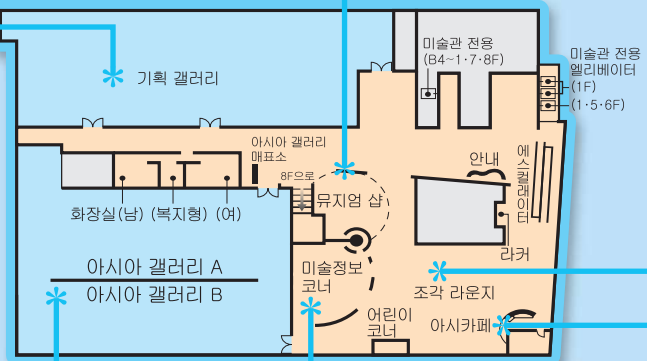
조각라운지

자연관선으로 아시아 각국의 조각 대형작품과 인스톨레이션을 전시하여 이벤트도 개최하는 오픈스페이스입니다.



아시아 미술이 말한다

전시·정보·샵
7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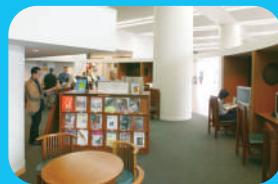
아시아갤러리 A, B

질, 양과 더불어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소장품으로 아시아의 근현대미술의 흐름을 장르별로 소개.



미술정보코너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의 출판물과 잡지, 비디오, 소장품검색시스템으로, 아시아의 미술과 문화에의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아시아카페

간단한 경식과 커피를 즐기면서 조각라운지의 작품과 하카타의 도시풍경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Panya Vijnthanasam (Thailand)
The Journey of Soul 2001



Wang Hongjian (China)
Funeral in Winter 1994



Saya Saw (Myanmar)
Portrait of Royal Family Late 19th-early 20th c



Liu Kang (Singapore)
Slippers 1930



Fang Lijun (China)
Series2 No. 3 1992



Ravinder Reddy (India)
Woman Holding Her Breasts 1998

「아지비」는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의 애칭입니다.

코너 입장은 무료입니다.

아지비홀

강연회, 콘서트, 영화회, 연극 등, 미술분야뿐만이 아닌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교류스튜디오

아시아의 미술작가들이 작품을 제작하며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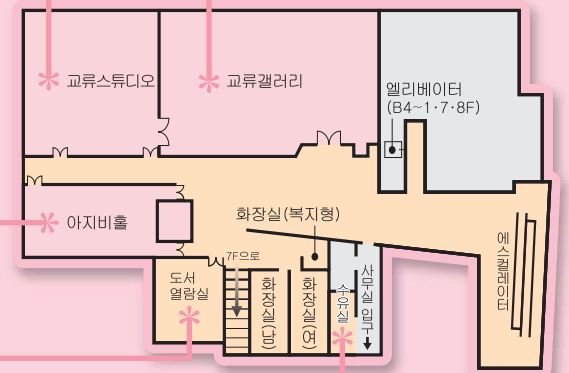
교류갤러리

아시아의 미술작가들이 후쿠오카에 체재하면서 제작한 작품을 발표하고 시인과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시민의 작품도 전시합니다.



미술작가들과의 교류

미술교류·조사연구
8F



도서열람실

아시아의 근현대미술에 관하여 세계에서도 유수의 규모의 장서(도록, 서적, 잡지)를 갖춘 열람 전용도서실입니다.



수유실

